**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오늘 본문은 체코형제복음교회에서 2015년의 한 해의 말씀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슬람바노’는 ‘상대를 용납하다,’ ‘마음으로 환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은 이 단어를 ‘Accep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accept 즉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처럼 서로 용납할 것을 권면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로마제국의 중심도시였던 만큼, 그곳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의견차이와 갈등이 없을 수 없었겠지요.

그 대표적인 갈등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간에 발생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서 금한 동물들을 먹지 않으려 했고, 율법에서 정한 특정한 날을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로마서 14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차이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각각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 모두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로 삼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온유와 겸손,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람을 자기 안에 품으셔서, 모든 사람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믿기로, 율법을 따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율법의 관습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 ‘믿음에 거만해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으므로, 나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받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식을 따라 행동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 즉각적인 답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식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의 삶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10-11,20-21)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반응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삶은 서로를 용납하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상대를 용납한다는 뜻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바울은 진리를 위한 싸움과 논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본을 보여야 할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한 것으로 인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성경은 분명히 용납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의 약점을 함께 짊어져준다는 뜻입니다.

그 짐을 함께 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의 영적인 성숙을 옆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전8:1)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고 15장 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서로의 영적 성숙을 위해 도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꼬빌리시 한인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들의 형편, 생각, 관심, 나이, 성격이 다 같지 않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꼬빌리시 다민족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역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1-3)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공동체의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꼬빌리시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서로 세워가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